오픈소스 서비스 개발 방법론

* Revolution OS –

학과 : 컴퓨터 공학과

학번 : 0200772055

이름 : 오대헌

Revolution OS 감상문.

Revolution OS를 보고서 처음 등장한 인물, 에릭 레이먼드를 보고 영화의 내용이 오픈소스 진영과 자유 소프트웨어 진형간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그릴 영화라는 걸 짐작하였다. 예전에 읽었던 책 “Dreaming in code” 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 이였기에 많은 부분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 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영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많이 알고 있던 오픈소스 진영과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 관한 내용이 그중 하나인데. MIT에 천재지만 괴짜로 불리우던 스톨만은 소스코드들이 극비 사항인것처럼 취급하는 산업 형태에 혐오감을 느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고안해 내었고 이에 따르면 누구나 소스코드를 들여다보고, 재사용하고, 자신들의 프로젝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로 작성한 코드에는 동일한 라이센스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GPL(GNU Public License) 라고 한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목적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유화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빌게이츠는 이러한 GPL이 자본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리누즈 토발즈라는 핀란드의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간단한 운영체제를 올리며 취미로 하는 자유로운 자원봉사식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 점점 이에 참여하는 개발자 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리눅스라 불리우기 시작하였고, 이 리눅스는 GNU에 비어있던 커널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 주었다. 그러면서 완벽한 운영체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GNU진형에서는 이러한 것을 ‘GNU/리눅스’ 라 하였고, 리눅스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개발 방식과 방법론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 이다. 오픈소스 진형에서는 ‘Free’라는 단어를 구분짓는걸 좋아한다. 오픈소스가 무료라는 것 보다는 자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구분한다. 하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진형에서는 이들을 변절자라 하며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이 영화에서 나온 에릭 레이먼드가 쓴 책 “성당과 시장” 에서는 리누즈 토발즈의 개발 방식이 의미하는 바를 “시장”에 비유하여 책을 써 나갔는데, 이 책에서는 개발자 들에 대하여 이러한 추론을 내놓았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을 기쁘게 만들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 좋은 개발자는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다. 위대한 개발자는 어떤 코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지 안다.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내용까지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오픈소스 진형과 자유 소프트웨어진형의 대립 드리고 조화 등 몇가지 분야에 대하여 내가 몰랐던 부분과 알던 내용을 많이 보여 주었다. 요즘 이러한 개발자의 이야기 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나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 변했으면 한다.